

現代의 歷史觀

〈眞實이 存在하고 한 번 이루어진 것은 없어질 수 없는 時代를 向해〉——《1984年》의 主人公 윈스튼·스미드는 그의 日記에 이렇게 썼다. 그가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는 專制的인 權力を 가진 黨이 支配하고 있다. 〈가차없이〉라고 덧붙여야 옳다. 그들은 〈텔레스크린〉이라는 텔레비죤裝置로 個人的 生活을 翳察하고, 조금이라도 反抗의 氣色이 보이면 無慈悲하게 肅清하니 말이다. 스미드가 그 日記에 〈思考가 自由롭고 人間의 個性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孤獨하지 않을 時代를 向해〉라고 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막힌 것은 黨이 마음대로 必要에 따라 過去의 事實을 改竄하는 일이다. 스미드가 勤務하고 있는 眞理省 記錄局은 바로 그 일을 擔當하는 곳이다. 이를테면, 〈때 17·3·84 태형 아프리카 연설 오보 수정〉이라는 指令이 온다. 이것은 84年 3月 17日字의 〈타임즈〉가 報道하기를, 太兄 즉 오세아니아의 獨裁者가 전날의 演說에서 南印度 前線은 평온할 것이지만 敵의 軍隊가 곧 北아프리카에 攻擊을 개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상 敵軍이 攻擊하기 시작한 것은 南印度였으며 北아프리카에는 아무 일도 없었으므로, 太兄의 演說을 실제로 일어난대로 豫言했던 것처럼 고쳐 써야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指令에 따라 修正된 그 날짜의 新聞을 再印刷하여 처음 것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철해둔다. 그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印刷物과 記錄을 모조리 訂正해서 黨의 豫言이 틀림없다는 '것이' 記錄上으로 證明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歷史란 必要하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고쳐쓰는 羊皮紙와 같은〉 것으로 되고 만다. 이러한 일에 종사하면서 〈모든 게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것〉같이 느끼진 스미드는 자기의 조그마한 眞實이나마 간직하고자 秘密히 日記를 적기 시작한 것이었다. 〈眞實이 存在하고 한 번 이루어진 것은 없어질 수 없는 時代를 向

해〉.

죠지·오웰이 이 可恐할 未來의 社會를 그린지도 어언 25年, 이제 15年 만 더 있으면 1984年이 오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는 그 해가 오더라도 그러한 社會에서 살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오웰이 말한대로 유라시아 大陸이 모조리 쏘聯의 支配下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切半이나 共產圈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오세아니아를 支配하는 黨이 내걸은 〈過去를 支配하는 者는 未來를 支配한다. 現在를 支配하는 者는 過去를 支配한다〉라는 슬로우건이 이상야릇하게 現代的 脚光을 받아 浮刻되게 마련이다. 거기서는 마르크시즘이라는 歷史理論이 國家의 教理로 되어 있으므로, 그야말로 現在를 支配하는 者가 過去를 支配하게 되어 그때마다의 情勢의 變化 내지 政治的 變動에 따라 過去가 修正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歷史의 歪曲이 오늘 날에 와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可能性을 는 지녔고, 따라서 危險한 學問이기도 했다. 물론 특정한 歷史理論이 國家의 教理가 됨으로써 強權으로 歪曲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事態는 未曾有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은 現代의 歷史觀이라고 할 수는 없다. 〈現在를 支配하는 者는 過去를 支配한다〉는 오세아니아의 黨의 슬로우건은 그와 다른 意味에서 現代的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그것은 일찌기 크로체가 〈모든 歷史는 現代의 歷史〉라고 외쳤고, 근자에는 카아가 〈歷史는 過去와 現在 사이의 對話〉라고 말한 20世紀의 歷史觀의 基調라고 할 것이 거기에 劇畫化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 世紀 初葉의 美國의 이른바 〈新史學派〉의 경우를 보라. 마르크시즘은 본래 變革에의 志向을 理論化한 것이라 하겠는데, 같은 志向에서 〈前進을 위하여 過去를 利用할 때가 왔다〉고 부르짖고 〈過去를 現在에 隸屬〉시킴으로써 歷史를 죽은 知識 아닌 산 知識——우리의 行動을 위해 오늘의 狀況을 解明해주는 知識으로 하려는 〈프로그래틱〉한 企圖를 한 그들 역시 〈現在가 過去를 支配하게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歷史의 世紀라고 일컫는 前世紀에 랑케가 모든 實踐的 目的에 이 바지하기를 拒否하고, 자기의 따라서 歷史家의 任務를 〈오직 정 말 어떠하였

는가를 提示하는 것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뒤 歷史家의 金科玉條처럼 되어온 일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엄청난 變化가 이 世紀에 들어서서 이루어졌는가를 짐작할 만하다. 랑케는, 그리고 前世紀의 歷史家들은, 事實을 聖物化했다. 그는 事實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자 <자기 자신을 抹消하고 싶다>고까지 말한 일도 있었다. 따라서 歷史家란, 니체가 바꼬아 말했듯이, 對象을 있는 그대로 비취는 한낱 <거울>에 지나지 않게 마련이었다. 歷史의 對象인 過去의 事實——<明確한> 事實・<嚴然한> 事實——을 客觀的으로 記述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무도 그런 意味의 客觀的인 歷史가 可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歷史的> 事實이라는 것이 歷史家에 의해 選擇되고 解釋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무엇이 選擇되고 어떻게 解釋되는 것일까. 過去가 權力의 必要에 따라 가차없이 改竄되는 虛偽의 世界속에서 윈스튼·스미드가 남몰래 日記를 쓴으로써 간직하려 한 그의 조그마한 <眞實>마저 달라진다는 것일까. 어떤 意味에서는 그렇다. 가령 그百年後에 어떤 歷史家가 오세아니아의 歷史를 쓴다면, 스미드가 日記를 썼다는 事實이나 거기에 씌어진 그의 <眞實>은 어떻게 取扱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가, 이를테면, 2次大戰後 黨이 政權을 잡은 뒤 2084年的 現在에 이르기까지를 다룬다면 어떨까. 現在의 歷史的 由來——<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現在의 狀態가 어떻다는 것이 關鍵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 由來를 밝힌다는 것은, 現在로 하여금 그러한 狀態로 되게 한 原因들, 그 原因들의 原因들, 또 그 原因들의 原因들의 原因들 하는 식으로 因果的으로 邊及해가는 것밖의 아무것도 아니므로, 現在가 어떤가에 따라 그 原因으로 指目되는 일들도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84年에도 아직 黨이 강력히支配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没落하여 스미드가 바라던 自由와 個性과 孤獨의 時代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가 몰래 日記를 썼다는 事實도 달리 取扱될 것이다. 前者の 경우라면, 그 事實이 黨의 強力한支配에 조금도 影響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아주 默殺되거나, 選擇된다 할지라도, 고작 80年代에 이미 얼마나 강력하게 黨이支配하고 있는가를 例示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쓰이는데 그칠 것이다. 後者の

경우에도, 84年에는 아직 黨이 健在하고 있었으므로, 그 没落을 가져온 原因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黨에 당한 不滿이 쏙트고 있었다는例로서 그 事實이 選擇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選擇되고 나서야 비로소 스미드의 日記는 〈歷史的〉事實로 되거나와, 選擇되는 것은 매한가지라 하드라도, 前者의 경우에는 無意味한 抵抗 내지 粉粹된 反動으로서, 後者の 경우라면 自由를 위한 先驅的인 戰爭으로서 각각 달리 解釋되어 쓰이게 된다. 이와같이, 스미드가 바라듯 〈未來의 時代〉에 다행히 그의 日記가 어떤 歷史家의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歷史的 事實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직 그 歷史家의 選擇과 解釋에 달렸으며, 그가 選擇하고 解釋하는 基準은 그가 서 있는 現在의 狀況인 것이다.

여기에, 모든 歷史는 現代의 歷史이며, 歷史는 時代가 바뀜에 따라 고쳐 쓰인다는 20世紀의 歷史觀이 쟁점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確固한〉事實・〈嚴然한〉事實에 대한 19世紀的인 素朴한 信賴가 사라진 것을 말한다. 〈事實〉이라는 確固不動한 터전에서 일한다고 믿을 수 있었던 前世紀의 〈實證的〉인 歷史家들은 幸福하였다. 今世紀에 들어와서 그들이 디디고 섰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땅이 꺼졌다 해야 할 것이다. 明確한 輪廓을 가진 歷史的 事實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過去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덩어리진 混沌——이를테면, 한 나라의 過去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建國以來 지금까지 그 나라에 살던 國民個個人의 生活의 總集計이므로, 걸잡을 수 없는 混沌의 아무것도 아니다——속에서 歷史家가 選擇하고 解釋한 결과 成立하는 것이다. 20世紀를 豫言한 니체가 〈存在하는 것은 事實 뿐이라고 하는 實證主義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아니다, 事實이라는 것은 存在하지 않는다. 存在하는 것은 解釋 뿐이다〉고 말한 것에 呼應하듯이, 今世紀 初頭에 벳커는 〈歷史的 事實을 만들어 내는 것은 歷史家이다〉고 宣言한 것이었다. 이것 역시 하나의 코페르니쿠스的 轉換이라 할 일이다. 그리하여 〈事實〉이라는 確固한 발판을 잃은 歷史家는 되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다. 그것이 歷史家가 選擇하고 解釋하는 立場이나 觀點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그가 어떤 時

代에, 어떤 社會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決定되게 마련이다. 어느 時代나 어느 社會나 각기 獨自的인 價值 體系를 가지고 있어서 現實이 그것에 따라 秩序지어지는 한편, 각기 獨特한 現實의 ダイ内ミクス를 가지고 있어서 그 움직임이 그것에 따라 說明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하는 現實이란 이미 이같이 秩序지어지고 說明되어진 現實이며, 따라서 그것을 秩序짓고 說明하는 原理들——우리의 價值體系와 現實의 ダイ内ミクス는 우리가 現實을 把握하는 主觀的 前提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過去의 現實을 把握하려 할 때도 그 制約을 벗어날 수는 없다. 歷史家의 <아프리오리>라고 일컫는 까닭이다. 時代가 바뀌고 社會가 달라지면, 그 價值體系와 現實의 ダイ内ミク스도 달라지므로, 우리는 歷史를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달리 쓰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相對主義다. 確固하고 嚴然한 事實을 摸寫함으로써 客觀的 眞理·客觀的 歷史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은 19世紀人과는 달리, 現代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主觀的 前提·우리의 <아프리오리>——美國人の 이른바 frame of reference——를 통해 얻는 真實밖에 相對的 眞理밖에 바라지 않게끔 謙虛해졌다. 그것은, 말하자면 主觀과 客觀 사이의 關係의 眞理요, 카아의 表現을 빌자면, 歷史家와 事實·現在와 過去 사이의 對話에서 업는 真實인 것이다. 따라서, 時代에 따라 歷史가 고쳐 쓰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時代마다 다른 歷史를 쓰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時代마다 한 가지의 歷史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民族과 階級을 비롯한 여러 集團에 속하며, 이들은 다같이 時代의制約을 받으면서도, 각기 다른 價值體系와 現實의 ダイ内ミク스를 가진다. 따라서, 각기 目標로 삼는 바가 다르고 그 手段에 관한 打算이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막스·웨버가 말하듯이, 神들이 싸우고 있는 現代에 있어서는 그 神들의 數爻만큼——相異한 價值體系의 數爻만큼 여러가지의 歷史가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時代에 단 하나의 眞理조차 拒否되어 相對主義의 絶望속에, 마침내는 懷疑主義의 自棄속에 빠지고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未來를 向하여 세울 수 있는 目標란 제멋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現實의 다이내미크스로 보아 實現可能한 것, 그 現實的 與件이 마련되어 있는 것, 따라서 이미 하나의 趨勢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어야만 意味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未來의 可能性이 現在속에 여러개 있을 리가 만무하거니와, 또 있는 것중에서 함부로 고를 性質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때로 이른바 <狀況의 論理>라는 것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어떤 目標를 우리의 <歷史的 課題>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選擇의 餘地가 없는 일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취할目標나 可能性이 둘이나 그 以上 있다 할지라도, 그 중의 하나를 우리의 目標로 삼는다는 것은, 消風의 目的地를 고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웨버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섬길 神을 고르는 것이요, 탠델이 말하고 있듯이, <忠誠의 選擇>이라는 意味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擇한 어떤 目標, 어떤 未來는 우리에게 絶對的인 것으로 되거니와, 그러므로써 우리의 立場은 단순히 相對的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